

2025년 해외건설 기업경기 실태조사 및 전망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본부
e-mail:hppark@kict.re.kr

Survey and Forecast of Overseas Construction Companies in 2025

Hwan-Pyo Park*

*Construc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2025년 상반기 해외건설 기업경기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100개 해외건설업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수주, 수익성, 성장성, 자금, 자재수급, 장비수급, 해외인력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2024년 하반기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74.0으로 낮았으나, 2025년 상반기 전망치는 97.0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수주 분야는 2024년 하반기 90.6에서 2025년 상반기 111.2로 큰 폭의 개선이 기대되며, 중동,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에서의 수주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과 건축 부문에서 수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유가 상승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해외건설 매출액은 증가가 전망되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자재, 장비, 해외인력 등 자원 조달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해외건설 기업의 진출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수주액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해외건설 기업의 경기는 수주환경 뿐만 아니라 수익성, 건설자원 조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5년 해외건설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망하여 해외건설기업이 전략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해외건설의 수주액 현황 분석

2.1 세계 건설시장 규모 전망 분석

글로벌 인사이트는 2025년의 세계 건설시장 규모를 14.8조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 이러한 원인은 국제유가 증가와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하로 건설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특히 신흥 시장(중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한 건설활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성장 저

해요인이 있다. 특히 2025년 지역별 성장률을 보면, 중동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11.3%)로 전망되고, 아프리카(11.0%), 중남미(2.3%), 북미·태평양(1.6%), 아시아(1.6%), 유럽(1.2%) 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2.2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보면, 254개 업체가 101개 국가에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71억 달러(605건)를 수주하였다(표 1). 이러한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증가한 원인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증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의교, 민관협력이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2].

[표 1] 해외건설 수주현황(2020~2024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주액(억 달러)	351	306	310	333	371
전년대비 증감률(%)	57.4	-12.8	1.3	7.4	11.4
수주건수	567	501	580	606	605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24년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비중을 보면, 산업설비분야 65.5%, 건축분야 14.1%, 토목분야 4.6%, 용역분야 1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해외건설 수주액의 지역별

비중은 보면, 중동(49.8%), 아시아(19.2%), 북미·태평양(12.7%), 중남미(4.1%). 유럽(13.6%), 아프리카(0.7%)를 차지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해외건설 수주액 중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2월 말에 13.9%로 51.7억 달러를 수주하였다(표 2).

[표 2]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비중 추이(2020~2024년)

연도	도급사업	투자개발	투자개발 비중(%)
2020	345	6.3	1.8%
2021	275	31.3	10.2%
2022	300	10.2	3.3%
2023	319	14.6	4.4%
2024	319.5	51.7	13.9%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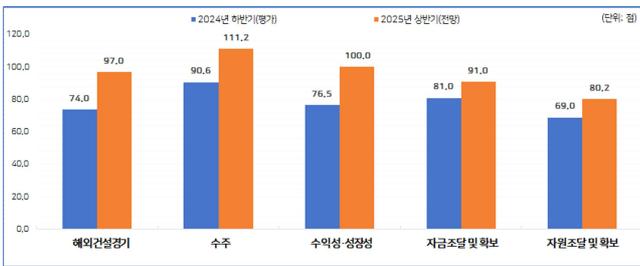
3. 해외건설의 기업경기 실태조사 및 전망

3.1 해외건설 기업경기의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는 해외건설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해외건설 100개 업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3]. 특히 본 연구는 해외건설 기업경기를 수주, 수익성, 성장성, 자금, 자재수급, 장비수급, 해외인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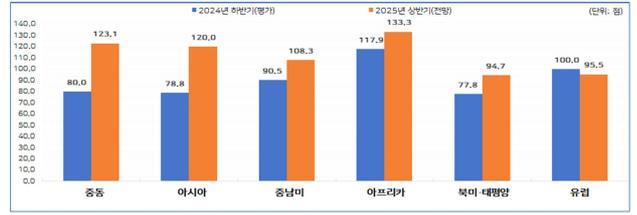
3.2 해외건설 기업경기 평가 및 전망

2025년 해외건설 기업경기 실사지수 조사는 2024년 하반기 평가와 2025년 상반기 전망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024년 하반기 해외건설 기업의 경기(BSI)는 74.0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상반기 전망 BSI는 97.0으로 전망하였다(그림 1). 해외건설 수주부문에서도 2024년 하반기는 90.6으로 평가되었지만, 2025년 상반기 전망 BSI는 111.2로 해외건설 수주의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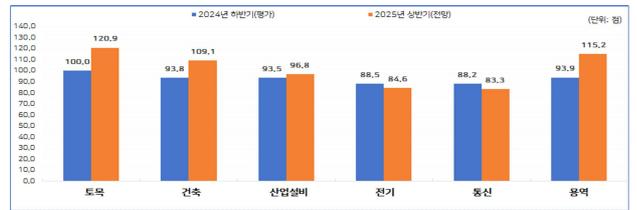
[그림 1] 해외건설 기업경기 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2025년 상반기)

특히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를 보면, 2025년 상반기에는 중동,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해외건설 수주 전망이 밝을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



[그림 2]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BSI 평가 및 전망(2025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를 보면, 토목, 건축분야에서 2024년 하반기보다 수주환경이 더 나아질 전망으로 나타났다(그림 3). 이는 인프라 투자확대 및 유가상승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BSI 평가 및 전망(2025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매출액 전망은 2024년 하반기보다 더 좋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영업이익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3). 자원조달 및 확보의 BSI지수를 조사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망은 자재, 장비, 해외인력 모두 밝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2024년 하반기 평가는 자재, 장비, 해외인력에 대하여 모두 낮게 평가되었다.

[표 3] 수익성, 자원조달의 평가 및 전망(2025년 상반기)

구분	영업이익	매출액	자재	장비	해외인력
2024년 하반기	73	80	65.0	72.5	69.5
2025년 상반기	95	105	82.0	80.0	78.5

참고문헌

- [1] 해외건설협회, “글로벌 건설시장 진출전략”, 2025. 1
- [2] 해외건설협회,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2025. 1
- [3] 박환표 외, “건설정책 및 건설관리 발전전략 - 해외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24. 12. 31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4년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사업(project no. 20240089-001, 건설정책 및 건설관리 발전전략)와 국가유산청 수탁사업(project no. 20250134-001, 국가유산관리 업무수행지침 및 대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